

전남 6개 시·군 7곳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선정

국토부 주관...순천·곡성·고흥 등 순천 신도심 최초...곡성은 2곳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반 다져

순천·곡성·고흥 등 전남 6개 시·군 7곳이 국토교통부 주관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됐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 전에 주민들이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을 경험해 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준비성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대상지는 전국 75곳이며, 이중 전남 7곳, 전북 6곳, 광주 3곳이다. 전남은 ▲순천시 '덕연동, 다시 뛰는 마을활력 프로젝트' ▲곡성군 '1973 Revival' 함께 만드는

우리돌실마을과 '곡성 신나夜(야)' ▲고흥군 '행복을 쏘아올리는 어울림센터 만들기' ▲강진군 '일터와 삶을 잇는 달무릇 행복마을' ▲해남군 '해남에서 나누는 음식, 이야기, 정, 나눔샘' ▲신안군 '천사섬 별빛 스튜디오 조성사업' 등이다. 사업비는 각각 국비 2억원씩을 지원받게 된다. 곡성군은 이번 공모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곡성군은 협동조합과 주민협의체, 청년회를 주축으로 원도심 주민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주민 수요에 맞는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곡성읍 '곡성 신나夜'는 곡성전과 영운천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곡성군과 뚝방마켓협동조합이 운영 중인 프리마켓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거점시설 및 주민참여형 변화 조성, 지역 판매자 양성 등을 추진한다. 석곡면 '1973 Revival' 함께 만드는 우리 돌실마

울'은 1973년 호남고속도로 개통 이전의 교통 거점 지역이었던 석곡면의 위상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이다. 석곡로 주변 정비 및 야간 보행환경 개선, 문패·우편함 교체 등의 사업을 펼친다. 순천시 '덕연동, 다시 뛰는 마을활력 프로젝트'는 신도심 최초로 선정됐다. 순천시는 국비를 포함해 총 4억원을 들여 주민조직인 덕연동마을계획단과 함께 마을계획 수립, 안전지도 제작, 우범지역 스마트가로등 설치 등을 추진한다.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세입자와 건물주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마을 특성을 살린 축제를 기획해 주민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고흥군 '행복을 쏘아 올리는 고흥 어울림센터 만들기'는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등이 있는 복합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 애착심을 강화하기 위해 사

라저기는 마을자원을 발굴·기록하며, 공동체와 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강진군 '일터와 삶을 잇는 달무릇 행복마을'은 강진산업단지의 배후 주거지인 성전면 일대 도시재생 사업이다. 산단 근로자와 주민이 함께 어울리고 교류하는 커뮤니티 거점공간 마련, 주민공동체 활동 기반 조성 등을 통해 살고 싶은 성전면으로 만드는 계획이다. 해남군 '해남에서 나누는 음식, 이야기, 정, 나눔샘'은 공유 주방과 공동 육아를 위한 거점 공간을 조성해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마을소식지 만들기, 안심골목 조성사업 등을 진행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 초등 4학년 대상 7월부터 치과주치의 시행

순천시는 오는 7월부터 초등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사업'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유치기 빠지고 영구치가 나는 시기인 초등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치과 의료비를 지원해 충치를 예방하고 아동 구강건강을 돕는 사업이다. '치과주치의'를 통해 구강 위생 검사, 불소도포, 구강보건 교육 등 예방 중심의 구강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주치의가 필요하다면 판단되면 치아 홈메우기, 치석 제거, 방사선 촬영도 받을 수 있다. 대상 학생은 대안학교를 포함해 47개교 2800여명이다. 순천시는 앞서 지난 3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구강건강 조례'를 제정해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오는 6월 중 각 학교의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치과의사와 협력체계 구축, 교육청·보건교사·치과 의료기관 관계자 대상 사업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심기섭 순천시 건강증진과장은 "어릴때 치아를 잘 관리하면 어른이 돼서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다"며 "순천 아이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보령시·웅진군 등 섬 보유 10개 시·군 "2026년 여수 세계섬박람회 개최 지지"

아름다운섬발전협의회, 국회의원 당선인과 간담회서 공동 성명

여수시와 인접 웅진군, 충남 보령시 등 섬을 보유한 10개 시·군의 협의회인 아름다운섬발전협의회가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지지했다. 26일 여수시에 따르면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소속 10개 시·군 단체장들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컨실턴호텔에서 공동 성명을 통해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지지했다. 협의회는 "세계 최초로 섬을 가진 나라들이 한데 모여 섬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섬이 많은 나라"라며 "섬은 해양관광 개발 거점은 물론 해양 생태자원의 보고와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으로 그 가치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이어 "여수시는 365개의 보석같은 섬을 자원으로 돌산에서 고흥을 잇는 11개의 다리가 완성되는 2026년에 여수 세계섬박람회를 열 예정"이라며 "협의회는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간담회도 열었다. 간담회에는 권 시장 등 10개 시·군 단체장과 주철현(여수갑), 김희재(여수을), 윤재갑(해남·완도·진도), 김병욱(포항남구·울릉군), 배준영(인천중구·강화·옹진) 국회의원 당선인 5명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여수시는 다음달 중 협의회 소속 10개 시·군의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개최 지지 공동성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섬을 보유한 10개 시·군 협의회인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는 지난 25일 서울 컨실턴호텔에서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 개최 지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여수시 제공)



고기 신선도의 지표가 되는 휘발성 유기질소를 비롯한 트리메틸아민, 과산화물, 산가, 산패도(TBARS) 값은 22~51% 감소했다. 이는 재료의

신선도 유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다. 용역을 수행한 박상규 남부대 교수는 "녹차 추출물은 약취의 주원인인 염기성과 산성의 냄새를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안전한 천연 탈취제"라며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 생성 억제, 산패방지 등에서 68.71%의 결과치를 보이는 등 높은 항산화 기능을 보였다"고 밝혔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마시는 음료를 비롯해 생필품, 식품, 의약품까지 차 연관 산업이 확장되고 소비처가 확대돼 차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발된 차 관련 기능성 제품들이 실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보성군, 녹차 추출물 활용 천연탈취제 개발

녹차 마스크 필터용 개발도 성공 군, 기업체에 기술 이전 준비

보성녹차 추출물을 활용한 천연 탈취제품이 개발됐다. 26일 보성군에 따르면 군은 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해 녹차 추출물을 활용한 천연 탈취제인 '차연무' (차진) 개발에 성공했다. '차연무'는 녹차 추출물을 활용한 고기 누린내와 생선 비린내를 잡아주는 식용 탈취제다. 녹차의 마

른잎에서 '무용매 진공추출법'으로 추출해 성분의 활성도가 높다. 보성군은 또 차(茶)의 향균 성분을 이용한 마스크 필터 개발에도 성공했다. 보성군은 해당 제품들이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기업체에 기술 이전을 준비하고, 제품 출시에 따른 행정적 지원도 할 방침이다. 보성군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녹차 추출물을 물에 10배 희석해 5분간 양고기를 담그면 누린내가 거의 사라져 전체적인 기호도가 88% 이상 높아졌다.

곡성군·소비자원 다음달 3일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실시

자동차·가전 제품 무상 점검도

곡성군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다음달 3일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및 법률 상담, 자동차·가전 제품 무상점검 행사를 연다.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및 법률 상담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레저문화센터 동악아트홀에서 진행된다. 방문·전화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유형에 따른 예방법과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조언 등이 이뤄진다. 이 곳에서는 한국인삼공사의 후원으로 사진작가가 장수사진을 촬영해 액자로 제작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자동차·가전·휴대폰 무상 점검은 같은 시간 곡성역 앞 주차장에서 실시한다.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5개사 80여명의 기술진들이 엔진오일, 부동액, 와이퍼 등 경정비를 진행한다. 가전제품 및 휴대폰 무상 점검에는 국내 가전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삼성, LG휴대폰, 경동보일러, 쿠쿠, 쿠첸 등)가 참여한다. 현장까지 가져오기 힘든 대형가전 제품에 대해서는 출장 점검도 실시한다.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대형가전을 가져오면 가전사와 보일러사가 찾아가 점검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 석유 무상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